

## 파워엘리트 주거지의 풍수지리학적 특성 해석

- 서울시에 거주한 역대 장관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

양성규\* · 양승우\*\*

## A Characteristic of the Power Elite's Houses in Respect of Feng Shui in Seoul

Sung Kyu Yang\* · Seung Woo Yang\*\*

**요약** : 본 연구는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파워엘리트(역대 장관)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풍수지리학적 특성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GIS 및 AHP 기법을 통해 역대 장관과 임의의 주택을 풍수지리학적 견지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관들의 주택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완만하고, 배산임수향이였다. 둘째, 임의의 주택은 골짜기에 위치하거나 직거수, T자 및 막다른 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풍수적 길흉의 유형에 가중치 값을 적용한 결과 장관의 주택은 임의의 주택에 비하여 약 3.5배 높은 길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길흉 이외의 분석 결과 첫째, 장관 주택의 가중치 총점과 장관 임기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관 주택의 물의 흐름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좌선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풍수지리학, 파워엘리트, GIS프로그램, CVR, AH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Feng Shui analysis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ower elite's houses. The study method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GIS and AHP techniques on target power elite's houses from the Feng Shui standpoint. The resulting data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houses of the power elites were on ridges with moderate slopes, which is characterized as a Baesanimsu. Second, there were random houses in the valley in connection with watercourses and considerable evidence of T-shaped and dead end roads were present. Third, by applying for a weighted value in the Feng Shui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ower elite's houses were 3.5 times higher than a random houses which are indicative of a superior position. In addition, when a weight score of power elite's houses were analyzed, the correlation term period showed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and water-flow frequently passed from left to right beginning from the power elite's houses.

**Key Words** : Feng Shui, Power Elite, GIS, CVR, AHP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Master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University of Seoul),

교신저자(E-mail: swyang@uos.ac.kr, Tel: 02-6490-2796)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풍수지리학은 예로부터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명맥(命脈)이나 시작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서 석탈해가 차지한 신라의 1000년 도읍지 반월성, 고려사에 도선국사(道詵國師)의 지시로 세워진 고려의 500년 도읍지 만월대, 무학대사(無學大師)와 정도전의 일화를 간직한 조선의 500년 도읍지 경복궁 등이 풍수지리학적 검토에 따른 도읍지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하급관리 채용 시험인 예조취재 및 잡과(음양과)에서 풍수지리 과목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 명맥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강대국들의 급속한 제국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기에 굴복한 동양(東洋)의 국가들(중국, 한국 등)은 고유(固有)의 철학적 사상과 정신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따라서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풍수지리학의 명맥이 끊어져 지금까지 천대(賤待)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래 도시계획은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과, 난개발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아무 생각 없는 도시개발의 줄기치 등에 따른 문제점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기법들을

찾고 있는 추세이다. 그 기법들 중 풍수지리학이 현대의 도시 입지선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입지선정이 있다. 그런데 풍수지리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길지(吉地) 혹은 흉지(凶地)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 이유는 주관론적인 해석, 이론의 불확실한 정립, 풍수학과별로 상이한 이론 및 과학적인 증명 요소 부족이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풍수지리학적 연구의 동향은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풍수지리의 학문적(고대 서적 및 구전) 접근이 어렵고, 단기간(1대=30년)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시대적 흐름 및 종합적 음양택의 분석)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풍수지리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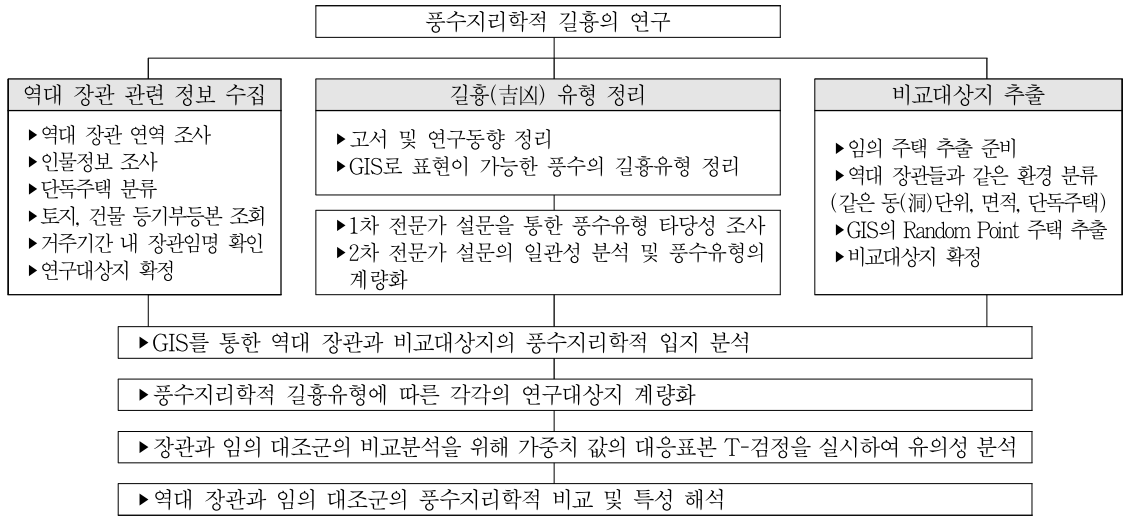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파워엘리트(역대 장관) 주거지의 풍수지리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 1) 시간과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 1948년부터 2013년 12월 31일 박근혜 정부까지의 장관급<sup>1)</sup> 중에서 장관(長官)이라고 명명되는 직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1) 국회 소속(국회 사무총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보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소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과 국무총리 소속(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소속(대법원장 및 대법관 13인,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속(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시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 2)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풍수지리학계에서 필수로 여기는 서적이나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풍수적으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추려내어 GIS로 표현이 가능한 길흉(吉凶)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 유형 정리

풍수지리학적으로 길지(吉地)와 흉지(凶地) 유형의 정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서와 근래

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풍수지리의 길흉(吉凶) 이론을 유형화한다. 둘째, GIS로 쉽게 표현이 가능한 길흉(吉凶)이론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셋째, 1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풍수지리학적 길흉유형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1차 설문조사 결과 타당성이 성립되면, 2차 AHP 기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풍수유형을 계량화한다.

#### 2) 역대 장관들의 정보 수집

역대 장관들과 관련한 정보 수집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가 잘되어 있는 위키 백과사전 및 인명록을 활용하여 역대 장관들의 명단을 수집한다. 둘째, 역대 장관들의 세부 주소는 「6만의 파워엘리트」 서적을 통해서 얻는다. 셋째, 획득된 장관들의 명단 중 단독주택에 거주했으며, 거주기간 중에 장관에 임명된 자의 주소를 추출해 낸다. 넷째, 분류된 주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토지·

건축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필지의 합필 및 분할에 따른 주거지 정보의 오류나 정보접근이 어려운 경우 신문기사(경조사 알림) 및 기록물(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3) 임의의 단독주택 추출

역대 장관 주거지의 풍수지리학적 분석을 객관화하기 위해 같은 행정동 및 필지 면적 등과 같이 장관들의 행정동 안에서 GIS프로그램의 Random PointView를 활용하여 Random 주택을 추출한다.

### 4) GIS 분석을 위한 준비(Tool 제작)

GIS 분석을 위한 준비(Tool 제작)는 다음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공간상의 고도값(표고값)을 가지고 있는 2가지 공간정보(등고선, 표고점)를 결합하여 TIN(불규칙 삼각망)을 생성한다.

둘째, TIN을 이용하여 지형의 입체적인 형태와 경사방향(aspect), 경사도(slope) 등의 활용정보를 파악한다.

### 5) 전문가집단 설문조사(델파이 및 AHP)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타당성 조사 및 계량화를 위해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수지리학 전문가의 정의를 내리고 전문가 패널을 25명 내외로 선정한다. 둘째, 델파이조사 기법을 응용한 CRV 타당성 조사 분석을 위해 1차 설문지를 제작하고 배포한다. 셋째, 1차 설문지를 통해 풍수의 유형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면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유형을 계량화(AHP)하기 위해 1차 설문지의 전문가 패널 중 10명을 선정하여 2차 AHP 설문을 실시한다. 넷째, 회수된 설문지의 일관성을 확

인하고 각 유형을 계량화한다.

### 6) 연구대상지의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 분석

첫째, 장관과 임의 대조군의 객관적 비교분석을 위해 1, 2차 전문가 패널 설문을 통해 계량화된 풍수 유형에 가중치 값을 부여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분석한다.

둘째, 역대 장관들의 주택과 임의의 주택이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며, 길지(吉地)가 많은지 흉지(凶地)가 많은지, 혹은 장관 임기에 따른 가중치 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III. 이론 고찰

### 1. 선행연구 고찰

#### 1) 선행연구 동향 검토

##### (1) 풍수지리학적 입지 분석 선행연구

풍수지리학적 연구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중 1990년대부터 최근 2010년대까지 풍수지리학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그 중 김경진(2012)은 고서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풍수지리학적 흉지(凶地)를 7가지로 유형화하여 GIS를 통해 부동산 경매다발지역이 풍수지리학적으로 흉지(凶地)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경매 다발지역은 입수처 및 과협처가 89%였으며, 골짜기의 경우는 8%를 차지하였다.

풍수의 계량적 연구로 최주대(2007)는 가문마다 결혼한 성인 남자의 개체번성의 이유를 ① 연대적인 차이, ② 거주지의 지리적 차이, ③ 가계와 가문의 차이, ④ 풍수적 관점에서 묘지 지형의 차

이로 설정하여 족보를 토대로 전국에 50개 가문 중 19개 가문의 기준인물 부부에 대한 묘지의 종단지형을 조사하고, 그 기준인물에서 5대의 후손에 대한 출생(出生)과 절자(絶子), 절손(絶孫) 관계를 조사하였다. 나머지 31개 가문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후손번성에 관한 데이터를 SPSS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5% 이하의 유의성을 가졌으며, 그 결과 첫째, 급경사묘는 완경사묘에 비하여 절자율, 절말자율, 절말손율, 절직말손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계말손이 절손된다고 하였다. 둘째, 급경사묘 가문은 완경사묘 가문보다 후손 개체수의 증가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2) 파워엘리트의 주거지 입지 분석 선행연구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많은 뜻을 내포한다. 대략적으로 경제성, 문화성, 편리성 등을 나타낸다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민감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파워엘리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김창석(2002)은 시계열적으로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1970년대부터 2001년까지 강남지역으로 거주비율이 증가하면서 강남·강북 지역 간 파워엘리트 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직업별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화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직업별로는 조금씩 다른 거주지 분화를 하고 있으며, 모든 직업유형에 있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서울시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화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도시개발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특성 및 주택면적, 교육환경, 지자체의 재정 및 고용기반 등 지역특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향후 과제로는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의 영향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송기욱 외(2010)는 전국의 파워엘리트를 대상으로 거주지 분포와 지역특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서울 도심부와 근교지역 신도시 등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일부 특정지역에 집중 혹은 편중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둘째, 평균 공시지가의 차이는 실제로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2)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과제

### (1) 기존 연구의 한계점

근래 2010년대의 풍수지리 입지분석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형적이고 결과적인 의미를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집이나 묘소의 향(向)을 분석 요소에서 제외한 경우가 많으며, 좋지 않은 흉지(凶地)로서 극단적으로 분류하여 그 경각심을 알리는 게 전부였다.

파워엘리트 주거입지 선행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동(洞) 단위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강북·강남 등의 거시적인 분석과 지역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서 끝나는 결과가 많았으며, 파워엘리트들의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인 요인들을 분석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 (2) 연구과제 도출

선행연구의 한계점에 따른 본 연구의 과제는 첫째, 객관적 표현 수단이 어려운 향(向)을 도입하여 연구대상지를 분석할 것이며, 둘째, 단순한 홍지(凶地)이론을 토대로 경각심을 주는 연구에서 벗어나 길지(吉地)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시도를 할 것이며, 셋째, 풍수지리학적 이론을 통해 파워엘리트의 주거 패턴을 미시적 필지 단위로 분석하여 공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 2. 풍수지리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풍수지리학의 정의

풍수란 원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로 감출 장(藏)에 얻을 득(得)을 사용하여 바람(風)은 감추고 물(水)은 얻는다는 뜻이다. 겨울의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을 수 있고 농경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용이한 장소의 선택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묘(墓)의 상(相)을 볼 때에 사용되었던 학문을 풍수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토지를 보는 학문인 지리(地理), 가상(家相)을 보는 양택(陽宅) 등을 모두 종합해서 풍수학이라고 부르며, 지면의 형세를 인간의 길흉(吉凶)에 비추어 보는 운명술이다. 풍수사상의 원점은 풍(風: 공간)을 살려서 수(水)가 좋은 곳을 선택해 살려는 극히 당연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풍수란 음양오행설(陰陽五行

說)<sup>2)</sup>에 있는 것처럼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라고 해서 처음의 목(목은 봄의 기(氣)로, 봄이 되면 양풍(良風)이 부는 데서 바람(風)이라고 함)과 마지막의 수(水)를 합쳐 이 세상의 천지(天地) 모두는 목(木), 즉 풍(風)으로 시작하여 수(水)로 끝나고 다시 풍(風)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대자연이나 우주를 이해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다(김이중, 2005: 18).

### 2) 풍수지리학의 이론

#### (1) 좌향론(坐向論)

용(龍), 혈(穴)<sup>3)</sup>, 수(水), 삼자(三者)는 항상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 삼위일체(三位一體)가 성립될 때 완전한 혈(穴)의 발복(發福)<sup>4)</sup>을 예약(豫約)할 수 있는 것이다. 혈(穴)은 정(靜)이요, 향(向)과 수(水)는 동(動)이니 변화무쌍하며, 향(向)과 수(水)는 향상(向上)을 기준으로 하여 수지래거(水之來去)를 관찰하여 입향(立向)을 결정한다(장익호, 2006: 226).

#### (2) 명당론(明堂論)

혈(穴)의 생성과정을 말하면 태조산(太祖山)<sup>5)</sup>에서 발맥(發脈)<sup>6)</sup>하여 초초여정(迢迢旅程)에 오를 때부터 이기(二氣)의 대생명력(大生命力)과 오기(五氣)의 정령(精靈)을 받아 출맥(出脈)하는 것이다. 십리(十里), 백리(百里), 천리(千里)의 여정을 끝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태조산(太祖

2)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 두 원리의 소장(消長)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이다.

3) 기운이 응집된 곳으로 주변 산세의 중심이 되며 주인이 되는 곳이다. 넓은 의미로는 명당(明堂)이라 한다.

4) 운이 터져서 복이 닥친.

5) 모든 산줄기의 시작이며 산의 조종(祖宗)이다. 혈을 만들기 위한 처음 산이다. 지구 전체 산의 조종은 곤륜산(崑崙山)이며, 한반도 산의 조종은 백두산(白頭山)이다.

6) 산맥이 시작되어 나감.

山)에서 수기(受氣)의 강약여하(強弱如何)에 의하여 혈(穴)의 대소가 형성되는 것이며, 여정이 끝나면 산수동로(山水同路)라 함과 같이 산(山)은 음(陰)이요, 수(水)는 양(陽)이니 비로소 음양(陰陽)이 결합(結合)하여 보금자리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 평탄한 곳을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 (3) 제반대살론(諸般大殺論)

풍수지리학에서 살(殺)이라는 것은 향(向)에 의한 살(殺)과 산(山)에 의한 살(殺)로 구분된다. 보통 주택이나 묘(墓)가 폐가(廢家)나 고총(古塚)이 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향(向)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산에 의한 살(殺)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향(向)에 의한 살(殺)은 변화무쌍하여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털만큼의 오차로 인해 집이나 묘지가 흉지(凶地)로 변할 수 있으며, 혹은 아무리 흉지(凶地)의 땅이라도 향을 올바르게 한다면 그 화(禍)는 없어진다는 해석이다(장익호, 2006: 226).

구체적인 향에 의한 살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향(向)에 의한 살(殺)의 종류

연번	살의 종류	원인
1	용상팔살	물(水)의 오고 나감(得波)과 향(向)이 상극(相剋)
2	황천대살	
3	소황천살	
4	생래파왕살	
5	왕거충생살	
6	묘고살인황천살	
7	충생살	
8	관대파살	

또한 산(山)에 의한 살(殺)은 향(向)에 관계없이 어느 공간에 위치하기만 하면 살(殺)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 2>와 같다.

<표 2> 산(山)에 의한 살(殺)의 종류

연번	살의 종류	원인
1	입수와협처	산맥의 오고 감의 형태가 상충
2	사신사파괴	인위적으로 산을 파괴하면서 해로운 방사선(라돈)을 방출

이외에도 골짜기에 위치하거나 주택에 인접한 길의 형태(T자 혹은 막다른 골목)와 묘지에 인접한 물의 형태(궁수, 반궁수) 등이 살(殺)에 해당된다.

## IV. 분석의 틀

### 1. 분석대상의 설정

#### 1) 분석대상(장관)의 설정 이유

본 연구에서 파워엘리트 중에서도 장관(長官)들을 선택한 이유는 풍수지리 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명당 발복론 때문이다. 가령 장익호<sup>7)</sup> 선사(先師)의 유산록(遊山錄)<sup>8)</sup> ‘두승산사남연화개장(門升山寺南蓮花開帳) 장중중추일선맥(帳中中抽一線脈) 작자기충천성야(作紫氣沖天星也) 갱개소장(更開小帳) 인작평판(因作坪阪) 명진장문(名眞長門) 차위선인좌부형(此爲仙人坐府形) 양택(陽宅) 즉(則) 문천무만장상부지기수(文千武萬將相不知其數) 고금(古今) 비결무지(秘訣無之) 비결여차(秘訣如此) 차내(此乃) 호남제일승지야

7) 장익호, 1913~2000, 평안북도 구성군 출생, 동경 와세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용수정경, 유산록 전·후권 편찬, 70여 년간 간산(看山)에 몰두

8) 장익호(張益鎬) 저술, 50년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 위주로 현장답사를 하여 명당(明堂)을 산도(山圖)와 글로써 기록한 풍수지리 참고서

(湖南第一勝地也)’(장익호, 2007: 430)의 내용이 있는데 대략적인 뜻은 정읍 두승산 아래에 선인과 부형이라는 명당을 차지하면 수많은 자손들은 장상(將相)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장상(將相)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장수(將帥)와 재상(宰相)의 줄임말로,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을 보좌(補佐)하는 장관(長官)으로 국가 부서의 최고 수장(首長)을 말한다. 따라서 장관(長官)직까지 오른 사람들은 풍수지리학적인 명당(집)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정에 장관(長官)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대조군의 설정

### 1) 분석대조군(임의의 주택)의 설정 이유

대조군을 설정하여 장관들의 주거지와 비교한 이유는 본 연구의 객관성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sup>9)</sup>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공시되는 것처럼 본 연구에도 장관의 주거지(개별토지)와 임의의 주택(비교표준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분석대조군(임의의 주택)의 설정 내용

분석대조군의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관들이 주거지와 같은 동(洞)이어야 하며, 둘째, 서울시 주소 중에서 개인이 소유(지목: 대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으로 면적이 158~840㎡(약 48~254평)에 해당되는 주택 68곳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 3. 분석요소의 정의

### 1) GIS로 표현 가능한 풍수지리학적 길흉의 유형

#### (1) 길(吉)한 유형의 주택



〈그림 2〉 능선상에 위치한 주택 및 배산임수향의 주택

#### ① 능선상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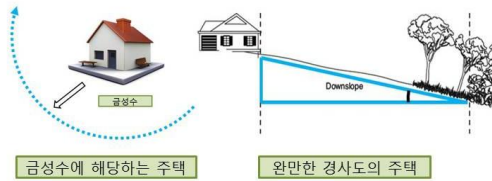
큰 산에서 뻗어나간 산의 줄기로,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산등성이에 위치한 곳으로 〈그림 2〉와 같다. 단, 입수과협처와는 다른 능선(용맥)을 받는 곳을 말한다. 옛 고서에서는 “무릇, 장사(葬事)는 모름지기 산의 능선 중앙에 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호순신, 2004: 207).

#### ② 배산임수향

산맥의 방향과 주택의 향이 일치하는 향으로 〈그림 2〉와 같다. 고서에서는 “자리는 좋지 않더라도 수법입향(水法立向)이 합법적으로 되었을 때 무해(無害)하며, 불합(不合)하였을 때 대패절사(大敗絶嗣)”라고 한다(장익호, 2006: 229).

9)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필지 주변의 여러 표준지 중에서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로서 당해 필지와 토지특성 비교를 통하여 비준율을 적용하게 되는 표준지를 말한다(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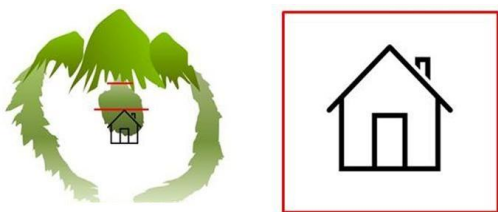
〈그림 3〉 금성수 및 완만한 경사의 주택

### ③ 금성수

주택이나 묘의 앞에서 물(하천, 강)이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그림 3〉과 같다. 고서에서는 “금성형의 수(水)로 가장 귀하다. 부귀쌍전(富貴雙全)하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충효현량(忠孝賢良)하며 의로운 인물과 호남아(好男兒)가 난다”라고 되어 있다. 예) 하회마을(신평, 1994: 238)

### ④ 완만한 경사도

보통 5°~10° 정도의 기울기 지형으로, 〈그림 3〉과 같다. 고서에서는 “양택(陽宅)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세(地勢)가 넓고 부드럽고 평평한 곳이어야 하고, 당국(當局)이 좁고 경사지며 뺄려진 곳은 마땅치 않으니라”라고 하였다(신평, 1997: 434).



〈그림 4〉 능선 끝 비만육후처 및 정방형 필지 주택

### ⑤ 능선이 끝나는 비만육후처

산의 능선이 끝나는 부분으로 내려오는 능선과 상대적으로 능선 좌우의 부피가 큰 곳으로 〈그림 4〉와 같다. 고서에서는 “명당은 반드시 산맥 끝에 육후처(肉厚處)에 결혈(結穴)하는 법(法)이다”라고 되어 있다(장익호, 2006: 202).

### ⑥ 정방형 필지의 주택

반듯한 사각형 모양의 필지로 〈그림 4〉와 같다. 풍수참고서에는 “재물과 관직이 안정되며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였다(정경연, 2013: 116).

### (2) 흉(凶)한 유형의 주택



출처: 정통풍수지리학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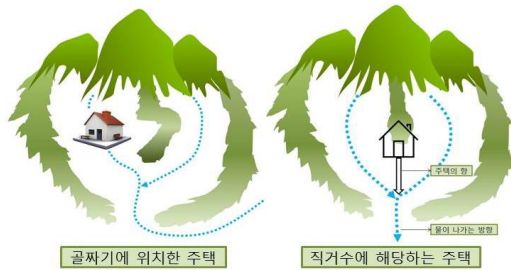
〈그림 5〉 입수과협처 및 능선 측면에 위치한 주택

### ① 입수과협처(入首過峽處)

명당이나 산을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 생기에너지를 응결시킨 곳을 말하며, 크게는 산과 산을 잇는 산줄기 부분에 별의 허리처럼 잘록한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고개’라고 부르는 곳이며 〈그림 5〉와 같다. 고서에서는 “혈후(穴後)의 내맥(來脈)에 장(葬)하면 수화상극지처(水火相克之處)이므로 불문가지패절(不問可知敗絕)한다”라고 하였다(장익호, 2006: 203).

### ② 능선 측면(옆구리)

산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이 아닌 가파른 능선 옆 부분으로 〈그림 5〉와 같다. 고서에서는 “무릇, 집이나 묘지는 모름지기 산 능선 중앙에 해야지, 그 터 잡은 곳이 중앙에서 벗어나 기울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호순신, 2004: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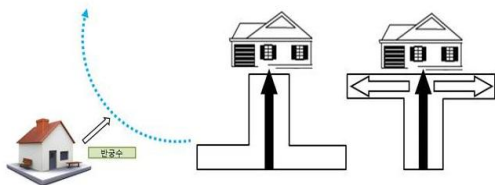
〈그림 6〉 골짜기 및 직거수에 위치한 주택

### ③ 골짜기

능선과 능선 사이의 계곡으로 〈그림 6〉과 같다. 풍수참고서에는 “골짜기에 위치하여 골바람을 받는 곳은 부지불식간에 사람이 다치거나 건강을 잃는다”라고 하였다(정경연, 2013: 99).

### ④ 직거수

주택을 중심으로 좌측 혹은 우측 능선이 거두어주지 않고 물이 곧게 정면으로 나가는 것(150m 이상)을 말하며 〈그림 6〉과 같다. 고서에서는 “용호(龍虎)가 무정하여 수(水)가 곧게 흘러 나간다. 고인(古人)이 이런 곳을 견우수(牽牛水)라 하였으니 인정(人丁)과 재물을 모두 패(敗)함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신평, 1994: 246).



〈그림 7〉 반궁수 및 T자 길, 막다른 길의 주택

### ⑤ 반궁수

주택과 인접한 강, 하천의 모양이 활의 등과 같은 물의 형태를 말하며 〈그림 7〉과 같다. 고서에서는 “산이나 물이 거칠고 험상궂어 활의 등처럼 반배되면 흉한 것이니 기(氣)가 짧고 우그러져 빨리

쇠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정관도, 1999: 38).

### ⑥ T자형 및 막다른 길

T자형 도로의 머리 부분에 위치한 주택으로, 길을 통해 바람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태의 길로 〈그림 7〉과 같다. 풍수 참고서에는 “항상 시비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재산의 손실과 화재의 우려도 있다”라고 한다(정경연, 2013: 113).



〈그림 8〉 비배산임수 및 비정방형 필지의 주택

### ⑦ 비배산임수향

산 경사방향과 주택 향이 다른 것을 말하며 〈그림 8〉과 같다. 고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향이 잘못되었으면 집이나 묘지가 흉지(凶地)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장익호, 2006: 226).

### ⑧ 비정방형 필지

정방형이 아닌 다각의 필지로 〈그림 8〉과 같다. 풍수 참고서에는 “복잡한 각으로 이루어진 택지는 우환이 끊이지 않으며 재난이 많다”라고 한다(정경연, 2013: 118).

### (3) 길흉 이외의 분석

#### ① 좌선수 및 우선수

주택의 좌측 청룡방에서 물이 시작되어 우측 백호방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 좌선수, 그 반대는 우선수이며,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좌선수 및 우선수의 주택

#### 4. 설문지 작성 및 설문대상(패널) 선정

#####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1, 2차 설문조사방법은 E-mail과 직접 대면방식으로 진행했다.

본 연구는 이미 풍수지리학적 고서 및 풍수지리 필수 도서에서 수집 및 축약하여 설문 문항에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풍수지리학적 유형의 경중(輕重)을 구별하여 계량화(計量化)함에 따라 장관 및 임의 주택의 풍수적 평점을 산정할 수 있다.

##### 2) 패널 선정

설문조사 방법은 전문가 설문조사 기법인 델파이 기법을 응용하여 풍수지리학적으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패널을 선정한다. 전문가의 범위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능력 참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였다(김병성, 1996; 최윤미, 2002). 보통 델파이 기법은 5명 이상을 요구하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25명 내외로 하였으며, AHP 기법 관련 전문가의 수는 적게는 4명에서 11명으로도 가능하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명이 넘기도 함에 따라 1차 설문에 참여했던 10명을 선정하였다(권태일, 2008).

전문가의 정의는 현재 국내에 활동 중인 풍수지리연구소 및 학회 수장(首長)에 해당되거나, 관련 저서를 한 번이라도 출판하거나, 관련 논문을 1회 이상 쓰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 5. 분석의 틀

##### 1) 분석의 가정

파워엘리트들의 주거입지와 풍수지리학적 길흉이론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였다.

① 장관들의 주거지는 일반시민들의 주거지보다 길지(吉地)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② 장관을 오랫동안 역임한 장관일수록 풍수지리학적 길지(吉地)에 입지할 것이다.

③ 일반 시민들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장관 이상의 지위를 가진 경우 풍수지리학적 발복론(發福論)에 따라서 길지(吉地)에 위치한 집이나 묘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위가 있는 파워엘리트들은 일반인들보다 정보에 민감하고 거주지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좋다는 정보를 더 빨리 얻어 길지(吉地)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장관을 오랫동안 역임한 장관들은 다른 장관들보다 풍수적으로 길지(吉地)의 영향을 받아 관직에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서울시 전체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길지보다는 흉지의 분포가 다소 많음에 따라 임의의 주택을 대변하는 일반 시민의 주택은 길지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 2) 분석 방법

### (1) 분석 방법

#### ① 데이터 수집과정

역대 장관들의 정보를 수집한 결과 장관의 수는 총 953명이었으며 이중 중복 이름 및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 찾을 수 없게 된 629명을 제외한 324명 중 풍수적으로 영향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한 211명을 제외했으며, 남은 113명을 대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하여 실제로 거주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 중에 장관에 임명된 단독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68명의 장관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② GIS 분석과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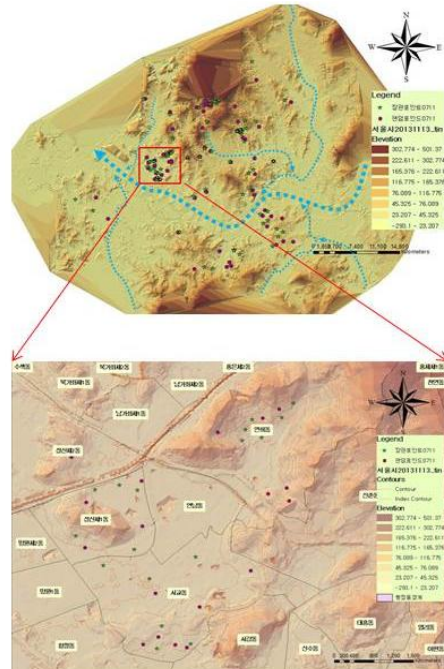
GIS 분석을 위해 TIN(불규칙 삼각망)을 생성한 후 장관들의 주소를 그 위에 나타내었다.

그 후 입체적인 지형을 통해 전체적인 산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세부적으로는 aspect(사면방향), slope(경사도), 1000:1의 수치지도와 지적도의 중첩자료를 통해서 산(山), 수(水)의 길흉 분석을 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Create contour,

〈표 3〉 주거지 분석방법

분석 항목	분석 도구	분석방법	
풍수 지리 학적 길흉 유형	GIS	사면방향	TIN ( 불 규 칙 삼각망)
		경사도	
		등고선+지적도	
		Create contour	3D Analyst
		Create Steepest Path	
		Create line of sight	
	현장 조사	GIS 분석을 토대로 실사 조사	

Create Steepest Path, Create line of sight를 이용해서 낮은 지대나 표현이 되지 않는 지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10〉 장관 및 임의의 주택 분포도

세부적인 각각의 분석유형들이 GIS로 어떻게 나타내었는지는 〈표 4〉와 같다.

〈표 4〉 GIS 분석방법 및 분석유형

GIS 분석방법	분석유형
Aspect(사면방향)	배산임수향(背山臨水向)
Slope(경사도)	경사도
수치지도+지적도	능선상, 능선측면, 골짜기, 금성수, 필지형태, 입수과협처, 직거수, 반궁수, 좌선수, 우선수
Create contour	능선상, 능선요구리(능선측면), 골짜기, 입수과협처, 좌선수, 우선수
Create Steepest Path	골짜기, 금성수
Create line of sight	경사도



### ③ 지적 및 주택의 형태 분석방법

네이버지도 및 다음지도(로드뷰)를 통해 단독 주택과 인접한 길의 형태와 대문 및 집의 향, 필지 모양 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GIS와 그 외의 분석결과가 정확한지 등을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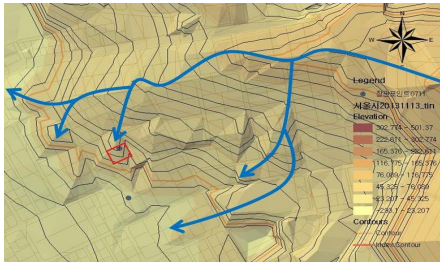
〈표 5〉 그 외의 분석방법

그 외의 분석방법	분석유형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로드뷰)	T자형 및 막다른 길, 대문방향, 집의 향, 필지모양
현장조사	대문위치, 집의 향, 인터뷰 등

### (2) 유형별 분석방법

#### ① 능선상(稜線上)에 위치한 주택

GIS의 Create contour를 활용해 1:1000보다 확대된等高선을 생성하여 연구 대상지의 능선상 유무(有無)를 〈그림 1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능선상에 위치한 주택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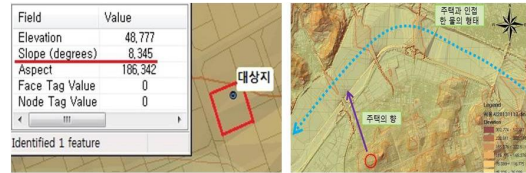
#### ② 경사도 분석

GIS의 TIN(불규칙 삼각망)에서 해당 필지의 Slope 정보를 통해 〈그림 12〉와 같이 경사도를 알 수 있다.

#### ③ 주택과 인접한 물의 형태는 궁수(弓水)

GIS의 TIN(불규칙 삼각망)을 통해 주택과 인접한 물의 형태를 〈그림 12〉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단, 궁수의 해당 여부는 주택이 향(向)하는 쪽

에 있어야만 한다.



〈그림 12〉 경사도 및 궁수의 분석

#### ④ 입수과협처(入首過峽處)에 위치한 주택

GIS의 Create contour를 이용해 1:1000보다 확대된等高선을 생성하여 연구 대상지가 산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는 입수과협처를 〈그림 1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입수과협처 분석

#### ⑤ 능선 측면( 옆구리)에 위치한 주택

GIS의 Create contour를 이용해 1:1000보다 확대된等高선을 생성하여 연구 대상지가 능선과 골짜기 사이의 비탈면에 있는 경우 능선 측면인 것을 〈그림 1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능선 측면 분석

#### ⑥ 골짜기에 위치한 주택

GIS의 Create contour를 이용해等高선을 생성

하여 대상지가 능선과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그림 15>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골짜기 분석

#### ⑦ 수구가 열려 있어 물이 직거수(直去水)하는 주택

GIS의 TIN(불규칙 삼각망)과 등고선을 통해서 주택의 향(向)과 같이 물이 곧게 나가는 것을 <그림 16>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직거수 분석

#### ⑧ 주택과 인접한 물의 형태는 반궁수(反弓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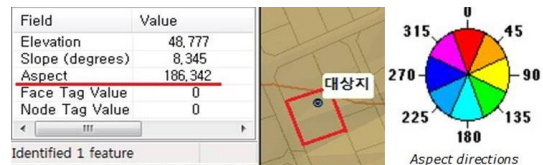
GIS의 TIN(불규칙 삼각망)의 등고선을 통해 주택의 향을 기준으로 물이 바깥으로 굽어져 흐르는 반궁수를 <그림 17>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반궁수 분석

#### ⑨ 주택의 향(向)이 배산임수향

GIS의 TIN(불규칙 삼각망)에서 해당 필지의 Aspect 정보를 통해 <그림 18>과 같이 향을 알 수 있다. Aspect<sup>10)</sup> 값은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의 향과 Aspect 값이 일치하면 배산임수향이 된다. 또한 주택 향(向)의 정의는 주된 경사 방향 및 주된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정하였다(국토해양부, 2012: 101).



<그림 18> 주택의 배산임수향 분석



<그림 19> 필지 모양 및 T자 길, 막다른 길 분석

#### ⑩ 필지모양이 정방(正方) 혹은 비정방형인 주택

GIS프로그램의 지적도를 통해서 주택의 필지 형태가 정방(正方) 혹은 비정방형(非正方形)인지를 <그림 18>, <그림 1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⑪ 주택에 인접한 길의 형태가 T자이거나 막다른 길  
위성지도 및 지적도를 통해 주택에 인접한 길 형태가 T자 혹은 막다른 길을 <그림 1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0) 예를 들어, Aspect 값이 186,342의 값을 나타내면 사면방향이 남쪽으로 되어 있다는 뜻(남향)이다.

## (3) 장관과 임의대조군의 주거지 비교 분석방법

## ① 단순비교

역대 장관과 임의대조군이 각각의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1과 0의 더미변수로 표현하였으며, 유형별로 더미변수의 합과 경사도의 평균을 단순비교하였다.

## ② 전문가 설문을 통한 유형별 가중치 분석 비교

첫째, AHP 기법의 2차 설문을 통해 얻어진 유형별 가중치를 장관 및 임의 주택 68곳의 더미변수 값과 곱하여 점수를 환산하였다.

둘째, 환산된 값을 통해 거시적으로 장관 및 임의대조군의 환산된 총점의 값을 SPSS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장관과 임의대조군 둘 중 어느 곳이 환산점수가 높은지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미시적 견지에는 장관과 임의대조군의 유형별 결과 값을 통해 길흉(吉凶)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V. 설문 구성 및 조사 결과

## 1. 설문 구성 및 결과

풍수지리학적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lt;표 6&gt; 설문 구성 및 방법

구성	델파이조사	AHP 조사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풍수지리학 관련 전문가	25명	10명

## 1) 1차 설문 구성 및 결과

## (1) 1차 설문 구성

1차 설문은 고서(古書)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된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유형이 전문가(실무자 및 선행연구자)들이 판단하기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델파이 조사<sup>11)</sup>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본래의 델파이 조사 방식은 의견 합의를 위해 동일한 전문가 패널에게 3~4회의 설문 응답이 진행되며, 여러 번의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 전문가의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것이다(김병성, 1996).

그러나 본 연구는 역사적 자료 및 선행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1회만 실시하였다.

설문지 형식은 5단계 Likert 척도<sup>12)</sup>이며, 최종적으로 14개의 설문문항으로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회(2014. 6. 14~7. 13) 실시하였다.

&lt;표 7&gt; 설문지 문항 구성표

영역	평가기준	문항 수
자연적 요인	주택의 길	4
	주택의 흉	5
인위적 요인	주택의 길	2
	주택의 흉	3
합계		14

11) 델파이 조사 방법은 정성적인 내용을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정량적인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이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이다(김세정, 2013).

12) '1. 매우 중요하지 않음'은 나쁘다(흉(凶))의 표현이고, 반대로 '5. 매우 중요함'은 좋다(길(吉))의 표현이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결과

1차 설문조사 결과, 회수율은 83.3%(25명)였다.

〈표 8〉 전문가 패널 구성

직위	참가인원	구성비율
학회장 및 연구소장	12	48%
교수	8	32%
선행연구자	3	12%
기타 전문가	2	8%
합계	25	100%

전문가 패널들로 하여금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유형별로 중요한 항목인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1차 설문조사 결과

길/흉 유형			M	SD	CVR
자연적 요인	길	능선상에 위치	4.64	0.86	0.84
		완만한 경사도	4.80	0.41	0.92
		능선이 끝나는 곳	4.52	0.59	0.84
		궁수	4.28	0.68	0.68
	흉	입수과협처	1.04	0.20	1.00
		능선옆구리	1.76	0.66	0.84
		골짜기	1.32	0.48	0.92
		직거수	1.36	0.52	0.84
		반궁수	1.72	0.68	0.68
인위적 요인	길	배산입수향	4.88	0.33	1.00
		정방형 필지	4.24	0.72	0.60
	흉	비배산입수향	1.28	0.54	0.92
		T자 혹은 막다른 길	1.64	0.64	0.76
		비정방형의 필지	1.88	0.78	0.52

내용타당도(CVR)<sup>13)</sup> 식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 값은 CVR 최솟값<sup>14)</sup>인 0.37보다 모두 높으므로 설문지의 각 문항은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CVR 값을 통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풍수지리학적 길흉 유형의 중요도<sup>15)</sup>를 알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표 9〉와 같다. 전문가들은 자연적인 요인 중 지형적인 요소(산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집의 향(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2) 2차 설문 구성 및 결과

## (1) 2차 설문 구성

2차 설문은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유형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AHP(계층화 분석)기법<sup>16)</sup>으로 실시되었으며, 1차 설문에 참여했던 전문가 패널 중 10명을 대상<sup>17)</sup>으로 2014. 7. 16~22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0〉 전문가 패널 구성

직위	참가인원	구성비율
학회장 및 연구소장	4	40%
교수	3	30%
선행연구자	2	20%
기타 전문가	1	10%
합계	10	100%

13) CVR 값은 Schipper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해 델파이 조사지에 참여한 패널의 수에 따라 그 최솟값이 결정된다. 즉, 유의도 .05 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솟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 여기서 ne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패널들의 수,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Likert식 5단계 척도에서는 각각의 평가항목이 영역별로 중요한 유형이라고 5점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빈도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N은 전체 전문가 패널의 인원수를 의미한다.

14) 패널 수에 따라서 CVR 최솟값보다 높으면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10명(0.62), 15명(0.49), 20명(0.42), 25명(0.37)

15) 본 설문결과의 중요도라는 의미는 풍수지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형이라는 뜻이다.

16) 의사결정문제가 다수의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선 평가기준을 계층화한 후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정해가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으로, 1970년대 초 T. L.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된 이후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태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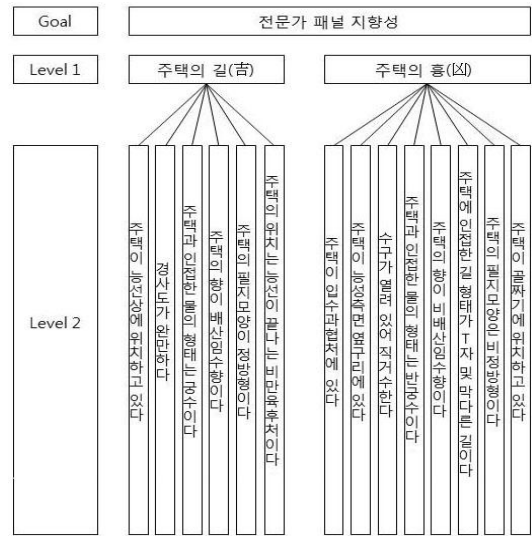
17) AHP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 참여대상인 전문가 패널의 규모는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유효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승준·한범수, 2006).



AHP 계층화분석기법은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분석 목적에 근접하기 위해 주택의 길흉(吉凶)(Level 1)의 기준을 나누고,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풍수지리학적 길흉의 유형 항목(Level 2)을 결정하였다. 둘째, 각 주제의 유형별 평가항목들 간에 쌍대비교를 실시한다. 셋째, 이원 쌍대비교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고, <표 11>과 같이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AHP 분석결과

길(吉)과 흉(凶)의 평가항목 간의 AHP 분석 결과 일관성은 모두 0.1 이하의 값을 나타내므로 일관성의 검증 결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차 AHP 설문을 통해 전문가 패널들은 풍수의 길(吉)한 유형 중에서 배산임수향이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흉(凶)한 유형 중에서는 입수와협처가 가장 낮은 가중치 즉, 가장 나쁜 유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20> 전문가 지향성 유형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계층 모형

유형별 가중치 산정결과 값은 <표 11>과 같다. 가중치 값은 각 패널의 상대적 중요도 값의 기하 평균값이 되었으며, 주택의 흉(凶) 영역은 산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 최종 가중치 값으로 적용하였다.

<표 11> AHP 가중치 산정결과 값

구분			AHP 가중치 산정결과 값										
유형		패널	(A)	(B)	(C)	(D)	(E)	(F)	(G)	(H)	(I)	(J)	평균
길	1	능선상에 위치	0.111	0.433	0.292	0.260	0.217	0.102	0.384	0.280	0.216	0.228	0.252
	2	경사도가 완만	0.196	0.073	0.108	0.151	0.124	0.207	0.076	0.111	0.148	0.126	0.132
	3	능선의 끝	0.147	0.152	0.149	0.109	0.130	0.137	0.149	0.151	0.098	0.131	0.135
	4	궁수	0.081	0.107	0.066	0.076	0.122	0.079	0.095	0.059	0.086	0.115	0.089
	5	배산임수향	0.419	0.183	0.330	0.360	0.349	0.426	0.247	0.337	0.403	0.339	0.339
	6	정방향 필지	0.047	0.053	0.056	0.045	0.059	0.049	0.050	0.063	0.050	0.060	0.053
일관성 분석			0.062	0.091	0.094	0.083	0.089	0.085	0.078	0.071	0.090	0.072	-
흉	1	입수와협처	0.306	0.295	0.335	0.298	0.327	0.307	0.299	0.351	0.325	0.337	0.318
	2	능선측면	0.068	0.048	0.054	0.046	0.045	0.066	0.052	0.047	0.044	0.044	0.051
	3	골짜기	0.203	0.181	0.196	0.188	0.200	0.202	0.185	0.184	0.183	0.185	0.191
	4	직거수	0.124	0.066	0.112	0.141	0.151	0.131	0.073	0.114	0.120	0.149	0.118
	5	반궁수	0.062	0.058	0.080	0.078	0.055	0.060	0.064	0.075	0.083	0.057	0.067
	6	비배산임수	0.170	0.185	0.110	0.131	0.121	0.168	0.177	0.125	0.129	0.120	0.144
	7	T, 막다른 길	0.040	0.113	0.077	0.075	0.067	0.038	0.095	0.070	0.074	0.071	0.072
	8	비정방향 필지	0.027	0.054	0.036	0.043	0.034	0.027	0.056	0.033	0.043	0.036	0.039
일관성 분석			0.092	0.096	0.061	0.067	0.084	0.090	0.079	0.075	0.058	0.078	-

## VI. GIS 및 AHP를 이용한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 분석

### 1. 단순분석

#### 1) 주택의 길(吉) 영역

〈표 12〉와 같이 역대 장관 68명의 주거지 중 능선상(稜線上)에 위치한 장관은 32곳이었으며, 임의의 주택은 21곳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관 주택이 능선상에 위치하는 경향이 컸다.

경사도는 57곳의 장관 주택이 길지 유형( $5^{\circ} \sim 10^{\circ}$ )에 속해 있었으며, 임의 주택 또한 길지 유형에 50곳이 속해 있었다. 평균값은 장관 주택이  $5.707^{\circ}$ , 임의의 주택은  $7.377^{\circ}$ 로 모두 다 길지 유형에 속했으나, 장관의 주택이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또한 장관과 임의의 주택 경사도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0.036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장관의 주택과 인접한 물의 형태가 궁수(弓水)인 경우는 9곳이었으며, 임의 주택은 10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배산임수향의 유형은 장관의 주택이 44곳이었

으며, 임의의 주택은 23곳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관들의 주택이 배산임수향의 경향이 컸다.

#### 2) 주택의 흉(凶) 영역

〈표 12〉와 같이 입수과협처(入首過峽處)에 위치한 장관은 2곳이었으며, 임의의 주택은 1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능선측면에 위치한 장관의 주택은 23곳이었으며, 임의의 주택은 27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골짜기에 위치한 장관의 주택은 11곳이었으며, 임의의 주택은 19곳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의 주택이 골짜기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이 150m 이상으로 곧게 나가는 직거수에 해당되는 장관 주택은 2곳, 임의 주택은 13곳으로 임의 주택이 직거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궁수는 장관이 1곳, 임의 주택이 1곳으로 같았으며, T자 및 막다른 길에 위치하고 있는 장관의 주택은 7곳, 임의 주택은 18곳으로 임의의 주택이 T자 및 막다른 길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배산임수향은 장관이 24곳, 임의 주택이 45곳으로 임의의 주택이 비배산임수향의 경향이 많았다.

비정방형의 필지는 장관이 25곳, 임의 주택은 27곳으로 둘 다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2〉 GIS를 통한 장관 및 임의 주택 단순분석 결과

구분		장관	임의	차이
길	1 능선상에 위치	32	21	11
	2 경사도	5.707	7.377	-1.67
	3 궁수	9	10	-1
	4 배산임수향	44	23	21
	5 정방형 필지	43	41	2
흉	1 입수과협처	2	1	1
	2 능선측면	23	27	-4
	3 골짜기	11	19	-8
	4 직거수	2	13	-11
	5 반궁수	1	1	0
	6 비배산임수	7	18	-11
	7 T, 막다른 길	24	42	-18
	8 비정방형 필지	25	27	-2

### 2. 가중치 비교분석

#### 1) 주택의 길(吉) 영역 비교분석

〈표 13〉과 같이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의 영역 중에서 길(吉)한 유형의 가중치 값을 분석한 결과 특징적인 결과는 능선상에 위치한 주택의 유형에서 장관 주택은 임의 주택에 비하여 2.772점이 높은 길지에 위치한다고 분석되었으며, 배산임수향의 유형은 장관 주택이 7.119점 높은 길지로 분석

되었다. 또한 다른 길지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이며, 최종 가중치 결과 값에 기여도가 높았다.

흥(凶)한 영역의 가중치결과 값을 분석한 결과 골짜기에 위치한 주택의 유형에서 임의 주택이 1.528점이 높은 흥지로 분석되었으며, 직거수 또한 1.298점이, 비배산임수는 3.024점이 높은 흥지(凶地)로 분석되었다.

〈표 13〉 AHP를 통한 장관 및 임의 주택의 가중치 결과

구분		장관	임의	차이
길	1 능선상	8.064	5.292	2.772
	2 경사도	7.392	6.600	0.792
	3 궁수	0.801	0.890	-0.089
	4 배산임수향	14.916	7.797	7.119
	5 정형 필지	2.279	2.173	0.106
	합계	33.452	22.752	10.700
흥	1 입수와협처	-0.636	-0.318	-0.318
	2 능선측면	-1.173	-1.377	0.204
	3 골짜기	-2.101	-3.629	1.528
	4 직거수	-0.236	-1.534	1.298
	5 반궁수	-0.067	-0.067	0
	6 비배산임수	-3.456	-6.480	3.024
	7 T, 막다른 길	-0.504	-1.296	0.792
	8 비정방향 필지	-0.975	-1.053	0.078
총합계		24.304	6.998	17.306

## 2) 종합적 비교분석

〈그림 21〉과 같이 장관 주택과 임의 주택의 가중치 값의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0.000으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음에 따라 유의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표 13〉과 같이 역대 장관들의 풍수지리학적 길흥(吉凶)의 총점 결과 24.304점이며, 임의의 주택은 6.998점으로 역대 장관들의 주택 점수가 17.306으로 약 3.5배 더 높은 길지(吉地)로 분석되었다.

대응표본 검정								
	대응자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장관가중치총점 - 임의가중치총점	.251	.492	.059676	.132	.370	4.209	67	.000

〈그림 21〉 장관과 임의주택 가중치 값의 T-검정

## 3. 풍수지리학적 길흥 이외의 분석

### 1) 장관 임기에 따른 가중치 값 분석

역대 장관들 가운데 여러 차례 장관을 역임하거나, 임기가 길었던 장관의 경우 풍수지리학적으로 길지(吉地)에 속한다는 가정에 따라 장관들의 임기와 장관 주택의 가중치 결과 값 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그림 22〉와 같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므로 풍수지리학적 길지(吉地)와 장관 임기의 관계는 없다고 분석되었다.

분산분석 <sup>a)</sup>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000	1	.000	.000	.994 <sup>b)</sup>
잔차	6.679	66	.101		
합계	6.679	67			

a. 예측값: (상수), 임기기간

b. 종속변수: 장관가중치

〈그림 22〉 장관 임기와 주택 가중치 값의 분산분석 결과

### 2) 물의 흐름에 따른 장관의 주택 분석

주택을 기준으로 물의 흐름은 좌선수(左旋水)<sup>18)</sup>와 우선수(右旋水)<sup>19)</sup>로 나누어지는데, 〈표 14〉와 같이 임의의 주택 68개 중 좌선수와 우선수가 각각 고른 분포(50%)를 보이는 데 반해, 장관의 주택은 좌선수(64.7%)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8) 주택과 주택의 향을 기준으로 물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의 방향

19) 주택과 주택의 향을 기준으로 물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흐르는 물의 방향

〈표 14〉 장관 및 임의 주택의 물의 흐름

구분	좌선수	우선수	합계
장관	44	24	68
임의	34	34	68

#### 4. 소결

##### 1) 장관 주택과 임의 주택의 풍수적 입지특성 분석

GIS프로그램을 통해 장관 및 임의 주택을 풍수 지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특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선상에 위치한 장관 주택은 68곳 중 32곳(47.1%)이 있었으며, 임의 주택은 68곳 중 21곳(30.9%)이었다. 또한 가중치 값은 장관 주택이 2.78점이 높음에 따라 장관의 주거지는 일반 주택보다 능선상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주택의 향이 배산임수향인 경우 장관 주택은 68곳 중 44곳(64.7%)이었으며, 임의 주택은 23곳(33.8%)이었다. 가중치의 차이는 장관 주택이 7.12점이 높음에 따라 장관 주택이 배산임수향의 경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의 경사도는 장관과 임의 주택의 경사도 평균값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대응표본 T-검정을 분석한 결과 유의확률이 0.036으로 0.05보다 낮으므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장관의 경사도 평균값은 5.707이었고, 임의 주택은 7.377이었다. 두 집단 모두 5°~10°에 해당되었으나 장관의 주택이 더욱 완만한 곳에 거주하는 경향성이 분석되었다.

넷째, 골짜기에 위치한 장관 주택은 68곳 중 11곳(16.2%)이며, 임의 주택은 19곳(27.9%)이었다. 가중치 값의 차이는 임의 주택이 1.53점 낮음에 따라 임의 주택은 장관 주택에 비하여 골짜기에 위

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직거수의 유형은 장관 주택 68곳 중 2곳(3%)이었으며, 임의 주택은 13곳(19.1%)이었으며, 가중치 차이는 임의 주택이 장관 주택에 비해 1.29점이 낮아 장관 주택 대비 임의 주택이 직거수의 경향이 분석되었다.

여섯째, T자 및 막다른 길에 위치한 장관 주택은 68곳 중 7곳(10.3%)이고, 임의 주택은 18곳(26.5%)이었으며, 가중치 값의 차이는 임의 주택이 0.8 낮음에 따라 임의주택이 T자 및 막다른 길에 위치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끝으로 장관 주택 및 임의 주택에 가중치 값을 부여하여 두 집단 간의 풍수지리학적 길흉(吉凶)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관은 총점 24.304점이었으며, 임의 주택은 6.998점으로 역대 장관들의 주거지의 점수 차이가 17.306점, 즉 약 3.5배가 더 높았다. 따라서 장관의 주거지는 일반 주택들에 비하여 3.5배 정도 길지(吉地)에 위치한다고 분석되었다.

풍수지리학적 길흉 이외의 분석으로는 물의 흐름이 좌선수(左旋水)인지 혹은 우선수(右旋水)인지를 분석한 결과 총 68곳 중 장관 주택은 좌선수가 44곳(64.7%), 우선수가 24곳(35.3%)으로 좌선수가 많았으며, 임의 주택은 좌선수가 34곳(50%), 우선수가 34곳(50%)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좌선수(左旋水)는 주택을 기준으로 왼쪽의 청룡(靑龍)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청룡은 남자, 명예, 관직, 출세, 수명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좌선수가 44곳이나 분석된 장관 주택은 풍수지리학적 영향의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 Ⅶ. 결론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파워엘리트 가운데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역대 장관들의 단독주택군과 임의의 단독주택군을 비교하여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길흉(吉凶)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장관들의 단독주택은 일반 다른 주택들보다 풍수지리학적 길지에 가까울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의 틀은 복잡한 풍수지리학의 길흉론(吉凶論) 중에서 GIS로 표현 및 분석이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여 14가지 유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14가지의 유형들이 과연 풍수지리학적 길흉의 유형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델파이기법을 응용해 풍수지리학적 길흉 유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1차 설문조사를 풍수지리 전문가 25명 내외로 실시하였으며, 내용타당도(CVR) 분석 결과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CVR값을 통해 전문가들은 자연적인 요인 중 지형적인 요소(산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위적인 요인은 집의 향(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관과 임의 주택의 풍수지리학적 길흉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풍수 유형을 계량화하였다. 계량화 방법은 1차 설문 응답자 25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2차 AHP 기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관성 분석은 모두 0.1 이하를

만족함에 따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HP 설문 결과 전문가 패널들은 풍수의 길(吉)한 유형 중에서 배산임수향이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이라고 나타났다. 흉(凶)한 유형 중에서는 입수와 협처가 가장 나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패널의 AHP 산술평균값을 통해 풍수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연구의 대상인 장관(長官)은 1948년부터 2013년 12월 31일 박근혜 정부까지 장관(長官)이라고 명명되는 직위를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정보의 유의성 검증과정을 통해 총 68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임의 주택은 장관과 같은 행정동의 주택 68곳을 추출하여 비교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GIS를 통한 역대 장관의 주택과 임의의 주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역대 장관 주택의 특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장관의 주택은 임의 주택들에 비해 능선상에 위치하고, 향(向)은 배산임수향이며, 경사도가 완만한 곳( $5^{\circ} \sim 10^{\circ}$ )에 위치한다.

둘째, 바람이 직충(直衝)<sup>20)</sup>하지 않고 바람을 가두는 곳이며, 물이 바로 나가지 않고 굽어나가는 곳이다.

셋째, 우백호(右白虎)<sup>21)</sup>보다는 좌청룡(左靑龍)<sup>22)</sup>이 발달한 곳이라고 분석되었다.

끝으로 역대 장관들의 주거지는 임의 주택들에 비하여 3.5배 높은 길지(吉地)에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분석되었다.

20) 바로 들어오거나 바로 나감을 말함.

21) 주택의 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감싸고 있는 형태의 능선을 가리킴.

22) 주택의 향을 기준으로 왼쪽을 감싸고 있는 형태의 능선을 가리킴.

##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기대효과로는 첫째, 접근이 어렵고 난해(難解)한 풍수지리학의 이론을 유형화하였고 그 의미를 GIS를 통해서 풍수지리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앞으로 미래의 풍수지리 관련 연구주제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둘째, 파워엘리트들의 거주지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 도심 안에 있는 시민들 모두가 길지(吉地)에 거주하면 좋겠지만 보통 하나의 도시 안에서 길지는 면적은 희소하고 홍지의 면적은 더 많음에 따라 시민 모두가 점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성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청와대, 국회의사당 및 정부청사의 위치나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있는 병원, 산후조리원, 학교 등이 풍수지리학적 길흥에 따른 입지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도심 안의 홍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의 폭이 좁은 일반시민들은 집을 고를 때 배산임수향에 주안점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와 같은 구릉이 발달된 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 능선을 파괴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풍수지리학적 분석 방법을 GIS를 통해 객관성이라는 데에 비중을 둬으로써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누락된 역대 장관들의 정보를 전수 조사했으면 분석 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었으나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GIS의 Random Point Tool이라는 무작위 지점보다는 다른 연구에서는 공신력(公信用) 있는 집단의 비교군을 가지고 연구하면 더욱 유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풍수지리학적으로 자손의 부귀영화나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은 집(陽宅)의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평야지대의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지형은 산지 혹은 구릉으로 되어 있어 보통 선조(先祖)들의 음택(陰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택(陰宅)과 양택(陽宅)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면 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을 통해 앞으로 풍수지리학 관련 연구의 관심과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12,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98~101.
- 권태일, 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진, 2012, “서울시 부동산 복수경매 주택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해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3호: 79~9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병성, 1996, 『교육연구방법』, 369~391, 학지사.
- 김세정, 2013, “텔파이조사방법을 활용한 피부미용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이중, 2005, 「자연법칙에 의한 지리풍수학」, 18, 도서출판 백일.
- 김창석, 2002, “서울시 상류계층(파워엘리트)의 주거지역 분포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5호: 65~8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태준·이근상, 2006, “GIS 기반 AHP기법을 이용한 작물재배 적지분석”,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26권 제4D호: 695~702, 대한토목학회.
- 김태형, 2002, “GIS환경에서 GRID와 AHP를 이용한 Geoprocessing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제12권 제1호: 13~22,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 무라야마 지준, 1991, 『朝鮮의 風水』, 553~635, 민음사.
- 박성현·조신섭·김성수, 2006, 『한글 SPSS』, 181~204, 한나레아카데미.
- 송기욱·김창석·남진, 2010,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제45권 2호: 47~4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신민경, 2012, “정부정책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지표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평, 1994, 『지리오걸』, 238~247, 동학사.
- \_\_\_\_\_, 1997, 『풍수학 설심부』, 431~439, 동학사.
- 양성규, 2015, “서울시에 거주한 역대장관 단독주택지의 풍수지리학적 특성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동환, 2012, “T자형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위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37호: 7~32,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이용준·박근애·김성준, 2006,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AHP 기법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26권 제5D호: 861~867, 대한토목학회.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34~35, 교육과학사.
- 이태열, 2006, “분석적 계층화(AHP)기법의 이해”, 『감사원 평가연구원 평가리뷰』, 봄호: 64~65, 감사원.
- 이학식·임지훈, 2013, 『SPSS 20.0 매뉴얼』, 138~328, 집현재.
- 장익호, 2006, 『용수정경』, 21~230, 도서출판 백일.
- \_\_\_\_\_, 2007, 『유산록 전권』, 132~134, 도서출판 백일.
- 정경연, 2013, 『정경연의 부자되는 양택풍수』, 113, 평단문화사.
- 정관도, 1994, 『도선국사 풍수문답』, 38, 지선당.
- 정승준·한범수, 2006, “계층화 분석(AHP)을 이용한 2005 경기방문의 해 사업평가”, 『관광학연구』, 제30권 제3호: 199, 한국관광학회.
- 중앙M&B 편집부, 1995, 『6만의 파워 엘리트』, 15~1731, 중앙일보사.
- 최윤미, 2002, “비즈니스 영어 평가내용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주대, 2007, “비탈에 쓰여진 묘와 후손번성에 대한 SPSS통계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호순신, 2004, 『지리신법』, 207, 비봉출판사.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al Psychology*, 28: 563~575.
- Saaty, T. L., 1990,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eries, Vol. 1, RWS Publication.
- ko.wikipedia.org(위키백과사전)
- map.daum.net(다음지도(로드뷰))
- map.naver.com(네이버지도)
- www.poongsoojiri.co.kr/?c=9/34/80(정통풍수지리학회)

원 고 접 수 일 : 2014년 8월 7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20일  
 2차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22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5년 1월 15일